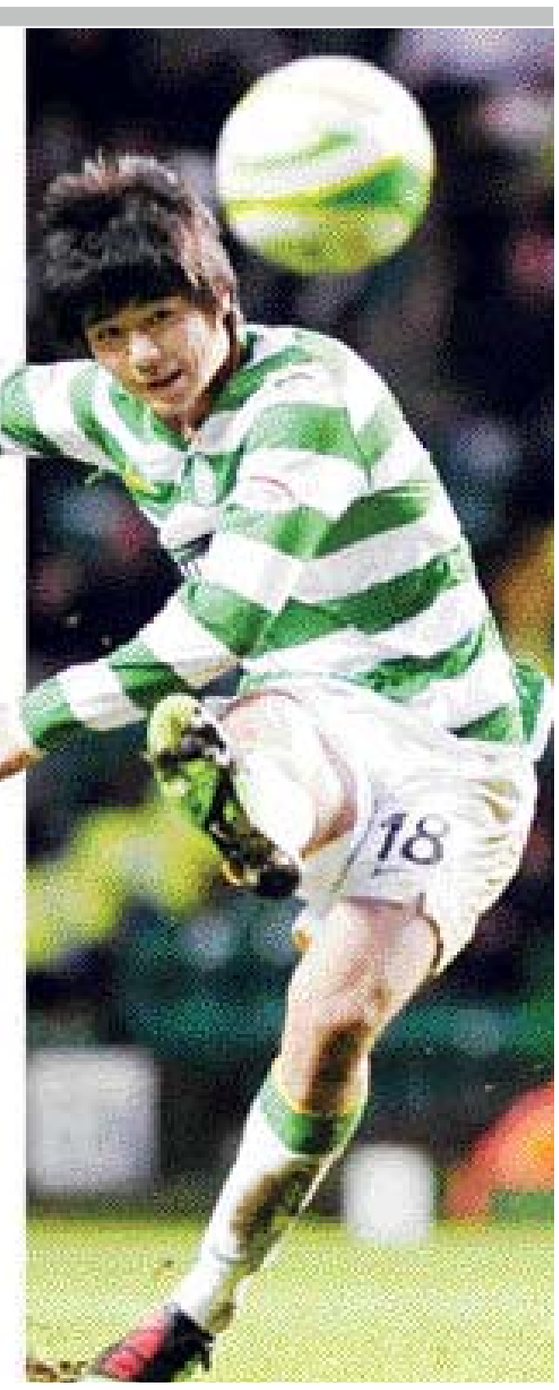
새로운 분위기의 9홀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27홀 개장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기성용의 '환상 킥' 영국서 통했다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 데뷔전 프리킥·코너킥 전담 풀타임 맹활약… 구단 선정 '맨 오브 더 매치'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기성용(셀틱 FC)이 유럽 무대 데뷔전에서 최우수선수에 선정됐다.

기성용이 스코틀랜드 셀틱 파크에서 열린 2009-2010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폴커크와 홈경기에 출전해 풀타임 활약을 선보이며 데뷔전을 성공리에 마쳤다.

미드필더로 나선 기성용은 공격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위협적인 프리킥을 선보이며 구단에서 선정하는 '맨 오브 더 매치'에 이름을 올렸다.

등번호 18의 셀틱 유니폼을 입고 처음 그라운드에 오른 기성용은 전후반 내내 활발한 몸놀림을 선보였다.

전반 13분 기성용은 페널티 지역 밖에서 프리킥을 맡아 공을 상대 골문 앞으로 띄워 줬으나 마크 앤트완 포춘의 헤딩슛이 골문 오른쪽으로 빗나갔다. 이후에도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하다시피 하며 기회를 엿보던 기성용은 전반 31분에는 폴커크의 콜린 힐리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한동안 그라운드에 누워 있기도 했다.

후반에도 기성용은 21분에 위협적인 오른발 슛을 선보였고, 30분에 날린 프리킥은 다시 한 번 포춘의 발끝에 걸리는 듯했지만 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특히 후반 21분 문전 30m 정도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프리킥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아쉽게 골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경기의 압권으로 평가됐다.

기성용을 돋보이게 한 것은 역시 프리킥이었다. 현지 언론이 기성용의 플레이에 대해 주로 언급한 것도 프리킥이었다.

영국 PA통신은 "기성용의 멋진 프리킥을 제외하면 셀틱이 막판까지 보여줄 게 별로 없었고 상대 골키퍼를 괴롭히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축구전문지 '사커렌즈'는 "셀틱 팬들의 예상대로 기성용이 미드필드에서 훌륭한 기술을 선보이며 전반적으로 괜찮은 경기를 했다"고 보도했다. 일간지 '더 스코츠맨'은 "기성용이 기대보다 심도 있게 뛰었다"며 "후반에 골키퍼가 재주껏 걷어내지 못했다면 골이 될 수도 있는 벼락 프리킥을 때리면서 희망찬 스타트를 끊었다"고 해설했다.

경기는 1-1로 끝났다. 폴커크가 먼저 전반 19분에 칼 피니건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셀틱이 전반 40분에 게오르기오스 사마라스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셀틱은 리그 12개 팀 가운데 최하위 폴커크와 비겨 승점 1점을 보태는 데 그쳐 승점 38점이 돼 이날 해밀턴 아카데미컬을 1-0으로 물리친 리그 선두 레인저스(승점 47)와 격차가 9점으로 벌어졌다.

한편 셀틱은 경기에 앞서 구단 홈페이지에 기성용이 폴커크와의 경기에 선발 멤버로 출전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기성용 스타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허정무호 그리스전 해법 찾는다

국내파 중심 베스트 11 오늘밤 핀란드와 A매치

축구대표팀이 국내파 중심 베스트11로 핀란드와 한판 대결을 벌인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8일 오후 11시 30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남부 말라가의 에스타디오 시우다드 데 말라가에서 핀란드와 친선경기를 갖는다. 지난 10일 잠비아와 평가전(2-4 패)에 이어 새해 두 번째 A매치다.

지난 5일 남아공 루스텐버그에서 전훈을 시작한 대표팀은 세 차례 연습경기를 치르고 16일 스페인으로 건너가 말라가 인근 휴양도시 마르베야에 2차 전훈 캠프를 차렸다.

대표팀은 지난해 11월 세르비아와 친선경기(0-1 패)부터 잠비아와 평가전까지 A매치 2경기 연속 패했다. 허정무호 출범 이후 A매치 2연패는 처음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55위의 핀란드(한국은 52위)는 유럽예선 4조 3위를 차지해 남아공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만 강호 독일과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비기는 등 만만찮은 전력을 보여줬다. 역대 A대표팀 간 맞대결에서는 한국이 두 번 싸워 모두 이겼다.

허정무 감독은 "이제 시간도 많지 않다. 경기력이나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출전할 것이다"라며 핀란드와 경기부터는 베스트 멤버로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또 국내파 중심의 24명 선수를 놓고 대략의 '옥석가리기'는 이미 마쳤음을 시사했다.

허 감독은 지난 14일 남아공 2부 리그팀 베이 유나이티드와 경기 때의 선발 라인업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바뀌면 한두 명 정도다"라고 말했다.

당시 4-4-2 포메이션에서 이동국(전북)과 염기훈(울산)이 투톱으로 나섰고 좌우 미드필더에 김보경(홍익대)과 노병준(포항), 중앙 미드필더에 김정우(광주)와 신형민(포항)이 호흡을 맞췄다.

좌·우 풀백은 박주호(이와타)와 오범석(울산), 중앙 수비수는 이정수(가시마)와 조용형(제주)이 맡았다. 골문은 김영광(울산)이 지켰다. 허 감독이 한두 명 바뀔 수도 있다고 한 포지션은 골키퍼와 미드필더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측면 미드필더에는 김재성(포항)과 이승현(부산), 이승렬(서울)의 경쟁이 치열하다. 중앙 미드필더에는 김정우의 짝으로 신형민을 비롯해 김두현(수원)과 구자철(제주)의 3파전 양상이다.

골키퍼 장갑은 맏형 이운재(수원)의 몫이 될 전망이다. 허 감독은 "이제 골키퍼도 세 명을 번갈아가며 뛰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 감독은 "지금까지는 우왕좌왕하는 과정이었다. 전훈 시작 2주 가까이 돼 가니 팀이 짜여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음달 동아시아연맹선수권대회도 있고 월드컵에 나가서도 해외파들과 박자가 잘 맞을 수 있도록 짜임새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규혁·이상화 우승

ISU 세계스프린트선수권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이규혁(서울시청)과 이상화(한국체대)가 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서 남녀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규혁은 17일 일본 오비히로 메이지 오벌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부 1,000m 2차 레이스에서 1분09초60만에 결승선을 통과, 2위를 0.13초 차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규혁은 전날 500m와 1,000m 1차 레이스 결과를 합쳐 139.91점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선수 사상 처음으로 대회 3회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규혁과 함께 대회에 출전한 이강석도 전날 중간순위 6위에 그쳤던 부진을 씻고 총점 140.88점으로 준우승, 한국 선수가 1,2위를 모두 석권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상화도 한국 여자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500m 2차 레이스에서 38초37으로 세계기록 보유자 예니 볼프(독일·38초24)에 약간 뒤진 2위에 오른 이상화는 이어 펼쳐진 1,000m 2차 레이스에서도 1분18초26으로 6위에 그쳤지만 전날 기록을 합친 총점에서 154.58점을 받아 일본의 요시이 사유리(154.83점)을 0.25점 차로 누르고 종합 1위를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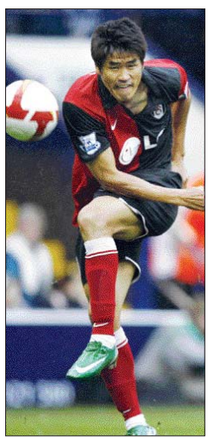
/연합뉴스

모굴스키 짜릿한 질주

캐나다의 제니퍼 헤일이 미국 유타 디어밸리 리조트 계곡에서 열린 월드컵 프리스타일 모굴(mogul)스키 예선라운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모굴 스키는 슬로프에 만들어 놓은 눈 둔덕을 타고 내려오는 종목이다. /연합뉴스

설기현 K-리그로 U턴

포항과 1년 계약…10년만에 국내 복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거 설기현(31·풀럼 FC)이 올 시즌부터 K-리그 포항 스틸러스 유니폼을 입고 국내 팬들에게 선보인다.

포항은 17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설기현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연봉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설기현은 18일 귀국해 20일 오전 포항 구단 사무실에서 입단식을 열고 오후 훈련부터 참가할 예정이다.

설기현은 "1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유럽에서 배운 선진축구 기술을 팬들에게 선보여 그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며 각오를 전한 뒤 "영국 무대에서의 경험을 살려 K-리그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운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0년 7월 벨기에 1부리그 로열 앤트워프에 입단하면서 유럽 무대를 처음 밟은 설기현은 2006년 7월 레딩FC로 이적하며 프리미어리거 꿈을 이룬 뒤 2007년 9월1일 풀럼으로 둥지를 옮겼으나 주전 경쟁을 뚫지 못하고 주로 벤치를 지켰다.

지난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 알 힐랄에서 6개월간 임대선수로 활약한 뒤 이어 이번 2009-2010시즌을 앞두고 풀럼에 복귀했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한 차례도 소속팀 경기에서 뛰지 못한 끝에 한국 무대로 복귀했다. /연합뉴스